

지자체들이 만든 공공앱...돈만 쓰고 외면받아

광주 3개 구, 지역민 소통 위해 최대 10억원 들여 제작 가입자 적고 3년 넘게 게시글 없는 곳도...실효성 의문

광주지역 자치단체들이 자체 개발한 공공 앱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구수에 비해 가입자 수가 턱없이 모자라고, 3년 넘게 게시글조차 없는 등 외면받고 있어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활성화를 위해 이벤트를 진행해도 이벤트 기간이 끝나면 아무도 방문하지 않아 치밀한 수요 조사와 활용계획조차 없이 우후죽순으로 앱을 내놔 세금 낭비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지역 5개 자치구는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앱을 비롯해 주차장·지자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공시설물 이용과 지자체 프로그램 등과 관련한 공

공 앱을 운영하고 있다.

주차장과 각종 프로그램을 안내하기 위한 앱들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지속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반면,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만든 앱들은 대부분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광산구가 고려인마을 사람들의 소통 공간 커뮤니티 차원에서 지난 2021년 만든 '월곡'은 개발에 만 10억원(국비 50%, 시비·구비 각 25%)이 들었다.

하지만 가입자 수는 인구 39만 8900여명에 턱없이 모자란 128명밖에 되지 않았다. 가장 활동이 활발해야 할 '커뮤니티' 게시판을 지난 2월에 올라온

글이 마지막이었다. 게시글에는 캠핑이나 테니스를 함께할 이들을 구하거나 국밥 맛집 추천 등을 받았지만 댓글은 달리지 않아 상호 호응이 이뤄지지 않는 모습이었다.

또 다른 앱인 '광산 ON'은 2020년 광산구민 소통 채널의 일환으로 4800만원 예산을 들여 개발됐다.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뜻에서 만들어 졌지만 주민 투표란은 지난해 11월, 카풀 게시판을 지난 2019년 12월을 마지막으로 글이 올라오지 않았다. 정책투표가 진행되는 '광산구가 묻습니다'란은 2020년이 마지막 글이었다.

주민참여 기반 소통 플랫폼인 '남구랑' 앱은 지난 2021년 7월 남구가 주민과 밀접하게 소통을 하겠다며 4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개발했다. 앱은 동네 정보 공유와 주민 단체 활동 지원, 주민 참여 정보 공유, 주민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운영한지 2년이 다 돼가지만 가입자는 863명 뿐이다. 4월 기준 21만1300여명에 달하는 남구 인구의 0.4% 가량의 주민들만 가입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남구는 지난 3월 열흘간 게시글을 작성한 50명의 주민을 선정해 1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광주 남구랑 함께해라'이라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는 30명도 채 되지 않았고 이에 24명에게만 상품권을 지급했다. 이벤트가 끝나는 날인 3월 10일이 올라온 게시글이 마지막 게시글이었다.

동구도 지난 2017년 민원 창구이자 프로그램 강좌 신청을 위해 '두드림'이라는 앱을 만들었다. 가입자 수는 2만 6272명으로 남구보다는 나은 상황이다.

하지만 대표 색션인 '동구 소식' 대부분이 문화

분야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마지막 게시글은 지난달 24일 올라온 민원 게시글이지만 지난달 8월부터 국민신문고와 통합되면서 주민들이 민원글을 올려도 이를 정식으로 접수할 수 없다는 것이 동구 두드림 담당자의 설명이다. 이 앱에서 정책투표가 진행되고 참여자가 30명 정도에 그친다는 것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자체마다 상황이 이렇자 북구는 자체적으로 만든 공공 앱인 '안심동행'을 폐지하기도 했다.

기수우 참여자지21 사무처장은 "다른 자치구에서 처음으로 도입한다고 무작정 도입을 하기보다는 타당성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면서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활성화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민 기자 kdi@kwangju.co.kr



풍수해 대응 모의훈련
광주시 북구청 직원들이 9일 광주 시 북구 임동 광천2교에서 풍수해 대응 종합 모의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전남경찰, 국민시각 반영 '112 코드' 마련

'인적 침해'·'공공 안전' 코드 상향

전남경찰이 국민과 경찰의 범죄에 대한 시각차를 반영해 112신고 코드 체계를 정비한다.

전남경찰청은 최근 3개월간 전남경찰청에 신고된 사건 중 100건을 뽑아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112신고 코드 체계 재정립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설문조사는 경찰 125명과 일반 시민 201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5월까지 2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조사결과 국민은 '인적 피해' 및 '공공 안전'과 관련된 신고에 있어 경찰보다 더 긴급한 코드를 부여한 반면, 경찰은 '물적 피해' 및 '내용이 불명확한 신고'에 있어 더 긴급한 코드를 부여했다. 국민들은 실질적 위험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반면, 경찰은 법정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 2010년 마련한 '112신고 코드 체계'(코드0-코드4)를 유지하면서 인적 침해 및 공공 안전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는 코드를 상향할 예정이고, 법정형 보다는 실질적 불안감을 감안한 코드 지정 등 국민 코드의 특성을 반영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6개월 이후 재설문을 통해 국민과 경찰간 인식차 감소 여부 및 112신고 국민 만족도 지표 개선(신속성, 전문성)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AI 자동 코드부여' 시대에 대비, AI가 기존 경찰 시각 뿐 아니라 국민 시각도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 기관에 자료를 제공하는 등 협업을 나갈 방침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코드 체계가 도입된 지 13년이 지났지만 국민 시각이 반영된 적은 없었다"며 "새로운 112코드 체계는 치안 수요자인 국민의 시각을 반영했다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무인점포 업주, 절도 초등생 신상 공개 "오죽했으면" vs "도 지나쳤다"

광주서부경찰 "부모와 합의 안된 듯...신고는 안해"

광주의 무인점포 업주가 자기 점포에서 과자 등을 훔쳤다는 이유로 초등학생들의 신상을 공개해 논란이다.

광주시 서구의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 업주는 최근 점포 출입문에 초등학생 두 명의 신상을 담은 경고문을 붙였다.

경고문에는 점포 인근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두 명의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과 학년, 이름

의 첫 두 음절 등이 적혔다. 또 두 학생이 지난 22일 오후 4시 40분께 이 점포에서 1만 6000원 어치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훔쳤으며, 같은 날 오후 6시 50분께 1만 2200원어치 과자-아이스크림을 추가로 훔치려다 적발됐다는 내용도 적혔다.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업주는 이같은 절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으며, 학생들 부모와 절도 피해 보상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자

경고문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퍼지면서 군이 아이들의 신상을 공개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논란이 퍼지고 있다.

아이들을 쉽게 특정할 수 있을 만큼 신상이 구체적으로 적힌 탓에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이들에게까지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다. 이미 이들 학생이 다니는 초등학교 뿐 아니라 인접 아파트 주민들까지 아이들의 절도 행각에 대한 소문이 퍼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적당히 타이르고 사과하면 될 텐데, 아이들을 범죄자로 낙인 찍은 것은 도가 지나쳤다"는 의견과 "그대로 뒀으면 피해가 더 심해졌을 테니 업주의 입장도 이해가 간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친부 살해' 혐의 김신혜 재심 1년만에 재개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46)씨의 재심 재판이 1년 만에 재개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의 공판준비 기일이 오는 24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형사1부(지원장 박현수) 심리로 열린다.

재개된 재판은 재판부가 모두 변경됨에 따라 인정선문 절차부터 다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는 2000년 완도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그러나 그는 "동생이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 말에 자신이 대신 감옥에 가기 위해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법원은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고 현장검증

을 한 점,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않은 경찰관이 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점 등을 갑갑 수사라고 판단하고 2015년 11월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김씨의 재심은 항고 절차 등을 거쳐 2019년 3월부터 시작됐으나 김씨 측이 변호인 교체와 국선변호인 선임 취소 등을 하면서 연기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71년 광주일보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키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3년 5월호

2023년 4월 30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나눔은 문화와 세상을 바꾼다

무안 황토갯벌랜드 낙지공원 '노을길' 전통생활문화 밀티러 테마파크 '황토골 무안'의 건강할 가득 담은 고구마 가공품-건강즙 비건 브런치 카페 '프레중'

해외문화기행 60
함메르쇼이 컬렉션 등 손짓 예술여행 핫플 코펜하겐 국립미술관

임의진 시인의 광주 속삭이 순례기 '변두리와 언저리' 70
남북분단으로 고향길 막힌 고려인 월곡동 고려인 마을과 현대의 도시 광주

배극남의 대중문화 지파일 60
유튜브로 부활한 코미디와 개그맨



특집

나눔은 문화와 세상을 바꾼다

- 기업, 시민 함께 '문화동행' 예술을 키우는 메세나 단비
- 사업가가 뿌린 기부 씨앗, 독보적 '하정웅컬렉션'으로 성장
- 고향에 희망을 심는 마음, 나눔의 물결 '고향사랑 기부제'

예향 초대석

희망을 전하는 카툰리스트
황중환
"웃는 얼굴 그리면 저절로 웃게 됩니다"

기획 '모두를 위한 미술관' 공공조형물 70
시벨리우스 기념공원
민족의 상처 위로한 예술 '핀란드'형상화

최고의 콘텐츠 몰입감 아시아 문화 놀이터 리모델링으로 업그레이드 ACC 아시아문화박물관

기획-도시가 역사를 기억하는 법 70
폴란드 바르샤바
63일간의 '봉기'와 항쟁의 자금심 도시에 각인

예향이 만난 이 사람
5년 만에 연극 복귀한, 박혜수 첫 4연인 국립발레단장, 강수진 야구 해설로 돌아온 '슈퍼소닉', 이대형

평민의 '예술가의 한 끼' 60
도쿄서 미술 배운 이완석 공예 통해 한·일 문화 교류 힘써

오동진의 '시네마 역사' 60
광기의 역사 사과 않는 일본 '뉘른베르크 재판' 보고 배워라